





▲1954년 소크가 백신에 사용한 바이러스 샘플을 연구하고 있다.

게는 소크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는 미 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된 일도 없으며 아카데미 회원들은 그의 업적을 '오리지널'한 것이 아니라고 업신여겼다.

이들은 그가 한 일 전부는 원숭이 신장세포에서 척수성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배양한 것 뿐인데 그 방법은 3명의 하버드 생물학자들이 발견(이들은 이 공적으로 1954년 노벨상을 수상)했고 이 바이러스

를 포르말데히드로 죽인 뒤 지원자에게 주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척수성 백신개발 경쟁에서 경쟁자의 한사람이었던 알버트 새빈박사는 그의 방법을 '천박한 화학'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소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하버드 탐이 긴 '호워드 패스'를 던졌는데 그것을 '잡은 것은 나'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결승점을 따냈다는 것이다.

1952년에는 기록적인 5만7천8백79명의 척수성 소아마비가 발생했는데 모두 치료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질병이 실제로 산업화 국가에서는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소크의 백신은 1962년 새빈의 입으로 복용하는 백신으로 대체되었다.

소크는 말년에 보다 사변적인 과학자-철학자가 되었다. 그는 인간은 스스로 진화를 지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유명한 소크 생물연구소를 창설했다.

1980년대에는 면역조직을 강화하여 HIV(사람면역부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의 에이즈를 막을 백신에 관한 연구를 개시했다.

에이즈 과학자들은 그의 이런 노력을 비웃었다. 그러나 소크는 "자기 시대를 앞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고 말했다.

1914년 뉴욕 피복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소크는 1930년대에 뉴욕대

학 의과대학생으로서 처음으로 바이러스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그의 전 교수의 한 사람인 토머스 프란시스 2세박사와 함께 일하기 위해 미 시건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곳에서 그는 2차세계대전중 미군이 사용한 유행성감기용 백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일을 도왔다.

전쟁이 끝난 뒤 소크는 피츠버그대학의 바이러스 연구계획을 지도하면서 차츰차츰 척수성 소아마비연구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1955년 4월 12일 소크의 동료과학자는 소크가 개발한 백신을 1백만명 이상의 미국 학동들에게 테스트해 본 결과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곧 미국 전역에 대량접종을 개시한 결과 1962년에는 미국의 척수성 소아마비 발생자수는 1천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 ㉞